상표지로서의 부사 '거의'

송현석, 이정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Adverbs as Aspectual Markers

Song,HyunSuk, Chungmin Lee
Dept. of Lingu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동사의 종류와 곡용, 논항의 종류와 격 등 문장의 상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이다 (Tenny 1994). 그러나 실제 자연언어처리에서 상 결정 요소들의 복잡한 조합은 기계가 문장의 상을 파악하는 작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상 결정 요인을 참조하지 않고 특정 부류의 부사에 의존하여 문장의 상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부사는 이른바 불변화사로 분류하는 품사 중의 하나로 통사적 혹은 형태소적 규칙의 적용을 받아 변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계는 복잡한 형태소 분석을 통하지 않는 부사를 포착하기가 쉽다. 이와 같은 이점을 지닌 부사가 통사적 분석을 토대로 파악할 수 있는 문장의 의미인 상에 대한 표지임을 증명하여 자연언어처리의 간결함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1. 부사 '거의'

국어 부사 '거의'는 통사적 위치에 제약을 가진 정도부사 혹은 양태부사이다. 손남익(1995)과 김영희(1985)를 정리하면, '거의'는 동작동사를 수식하여 상태를 보여주는 양태성과 어떤 상태나 속성의 정도를 가늠하는 정도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어떤 대상의 정도나 양태를 나타내느냐에 따라 '거의'의 위치는 결정된다.

1) a. 혜나는 연주를 거의 마쳤다.
   b. 두 직선이 거의 평행하다.

예문 (1a)에서 '거의'의 대상은 '마쳤다'라는 동사가 외연으로 삼는 동작의 과정이며 이 때 '거의'는 양태부사라 할 수 있다. 예문(1b)에서 '거의'는 형용사 '평행하다'가 가지는 외연을 그 대상으로 취하여 정도 부사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의에선 각각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 양태나 정도를 나타내는 '거의'를 사용하여 동사와의 분포를 살펴보고 그 분포와 문장의 상과의 관계를 기술하고자 한다.

2. 상

문장의 상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기본적인 요인은 동사의 곡용이다. 한국어와 같은 교착어에서는 어말어미의 변화에 따라 상이 실현된다.

(2) a. 사과를 먹는다.
   b. 사과를 먹었다.

(2a)는 먹는 동작 자체를 기술하는 동시에 지금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진행상을 보여준다. 한편 (2b)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를 통해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보조 동사를 통해 상이 더 명확히 나타나기도 한다.

(3) a. 사과를 먹고 있다.
b. 사과를 먹어 버렸다.

(3a)는 (2a)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진행상을, (3b)는 (2b)의 완료상을 보조동사를 통해 확정하고 있다.
또 하나 상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은 논항이다. 동사의 논항 존재 여부에 따라 상이 결정되기도 한다.

(4) a. 난 먹었어.
b. 난 사과를 먹었어.

(4a)에서 '먹다'를 사전상 자동사 용법으로 처리하면 동작은 일어나고 있지만 어떤 동작이 완료되었는지는 나타내지 못한다. 한편 (4b)는 '먹다'의 내부 논항 '사과'를 가지면서 동작의 완결(telicity)을 지니게 되고 '먹다'가 동작 동사로 나타난 (4a)와는 달리 완성동사의 면모를 보이게 된다.

상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은 부사이다. '완전히', '다', '대부분', '거의', '전부' 등의 부사를 일반적인 동작동사와 같이 사용하면 동작동사는 동작의 완결을 지니게 된다.

(5) a. 난 먹었어.
b. 난 다 먹었어.

(5a)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작 동사의 과거를 기술하고 있다. 한편 (5a)가 '너 점심 먹었니?'와 같은 앞선 발화에 의존하여 특정적이고 한정적인 대상을 상정하고 있다면 완료상으로 쓰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명시적인 완료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6b)는 부사 '다'를 사용하므로 별다른 이론적 장치 없이 그 문장만을 독립적으로 보아도 완료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토대로 다른 상 역시 부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논하는 범위는 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완료상에 국한하고자 한다.

3. '거의' 와 동사

동사는 그 상 의미에 따라 크게 4가지, 상태동사, 동작동사, 성취동사, 완성동사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상태동사에는 소유동사 및 동사와 비슷한 곡용을 하는 형용사가 포함된다. 이들 상태 동사의 경우 특별한 환경이 아니면 '거의'와 같이 쓸 수 없다.

(6) *서울과 수원은 거의 가깝다.

(6)은 상태동사 혹은 형용사인 '가깝다'와 쓸 수 없음을 나타낸다. (7)은 '거의'의 자리를 문장 내의 다른 자리로 바꾸어 보더라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

(7) a. *난 거의 걸었어.
b. 대가족 제도는 거의 무너졌다.
c. 우리집을 거의 완성했다.

(7a)는 '걷다'라는 동작동사와 '거의'를 쓴 경우이다. '거의'는 동작동사와는 같이 쓸 수 없다. (7b)는 동사의 외연이 되는 사건에 끝만 있는 성취동사와 '거의'가 이룬 예문이다. (7c)는 동작의 외연이 되는 사건에 동작의 시작과 끝이 있는 완성동사와 '거의'가 나타난 예문이다. 대체로 완성동사나 성취동사와 같이 '거의'를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
말씀서비스(과거 한글과 컴퓨터가 연세대학교와 연계하여 제공하던 코퍼스)에서 추려 놓은 '거의'의 용례 302 개를 분석했다. '거의'가 선행하는 문장요소 통계는 다음과 같다.

(8) a. 거의 + 술어 (176/302 약 58%)
b. 거의 + 명사구 (61/302 약 20%)
c. 거의 + 부사어 (65/302 약 21%)

이 논의에서 사용한 모든 예문은 위 코퍼스에서 추린 용례를 그대로 쓰거나 필요한 부분만을 치환하여 사용하였다.

4. '거의'와 완료상

동사가 완료상을 띠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이다. 하나는 동사 자체에 완료상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 즉 성취동사와 완성동사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사 내적인 의미로서의 완료상은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와 같은 형태론적인 지원을 받아야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9) a. 우리집을 완성한다.
b. 우리집을 완성하고 있다.
c. 우리집을 완성했다.

비록 동사 내적으로 외연으로 삼는 동작의 시작과 끝을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9a)와 (9b)를 완료상을 지닌 문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장이 완전한 완료상 환경을 충분히 갖추었는가, 즉 동사 내적으로도 완료상의 의미를 가질 만 하고 외적으로도 그 조건을 갖추었는가는 완료상의 의미를 확정하는 부사를 통해 시험해 볼 수 있다.

(10) a. *우리집을 거의 완성한다.
b. ??우리집을 거의 완성하고 있다.
c. 우리집을 거의 완성했다.

또 다른 완료상의 환경은 논항의 출현이다.

(11) a. 건물이 무너졌다.
b. 건물을 완성했다.

성취동사 '무너지다'와 '완성동사 '완성하다'는 각각 '건물'을 논항으로 삼아 완료상을 구현한다. '거의'를 통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2) a. 건물이 거의 무너졌다.
b. 건물을 거의 완성했다.

이들 부사를 첨가하고 나면 의미의 변화는 생기지만 문장의 완료상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완료의 시점이 발화 시점인지 아니면 발화 시점 기준 미래인지가 차이 날 뿐이다.('거의'나 '대부분'은 영어의 almost 와 같은 강한 contra-factuality 를 구성하지않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ㄹ뻔했다'를 쓴다). (12a)나 (12b)처럼 '거의'가 나타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의미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 지에 대한 함축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완료상은 논항이 계량화(quantization)하는 경우에 더욱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13) a. 혜나는 사과를 거의 다 먹었다.
b. 혜나는 사과 하나를 거의 다 먹었다.
c. 혜나는 거의 사과 하나를 (다) 먹었다.

(13a)는 논항이 있으나 완결에 이르렀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없다. 다만 청자는 (13a)의 '사과'가 한정적이고 특정한 '사과'라고 상정하고 이를 '먹다'의 완결로 삼는다. 그러나 (15b)는 한층 명시적이어서 '먹다' 동작은 '사과 하나'를 완결로 한다. '거의', '대부분', '다'는 이러한 명시적 완료상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거의'는 그 수식대상과 밀접한 관계한 있어서 그 대상과 떨어지면 비문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3c)와 같은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물론 이를 문장 부사로 처리하면 간단하지만 명사를 수식할 수 없는 부사가, 그리고 자리의 제약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부사인 '거의'가 (13c)와 같은 문장을 허용한다는 것은 계량화와 동사의 완결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관찰에 따르면, 완료상을 가지는 모든 경우, 즉 동사가 완성동사이거나 성취동사인 경우 혹은 계량화된 혹은 비계량화된 논항을 취하는 경우 모두 '거의'를 쓸 수 있었다.
이들 부사가 과연 완료상을 만들어 내는지 아니면 완료상의 의미를 이들 부사가 확정하는지는 예문에 나타난 동사들의 세밀한 조사와 함께 심화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와 같은 부류의 부사의 출현은 동사의 완결을 동반한 완료상의 표지가 된다는 것이다.

5. '거의'와 '대부분'과 '다'

'거의', '대부분', '다'가 모두 완료상의 표지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각각의 의미는 엄연히 다르다. 특히 '다'는 '거의'나 '대부분'과 확실한 의미 구분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다'가 completely 의 뜻이 아닌 조만간 완전하게 된다는 뜻으로 쓸 때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거의'와 '대부분'은 순수 부사와 한자어 부사라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분포가 대체로 비슷하다. 하지만 그 수식 대상은 차이가 난다.

(14) a. 고통이 거의 지나갔다.
b. 고통이 대부분 지나갔다.

(14a)에서 '거의'는 동사 '지나가다'를 수식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은 '고통'을 수식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을 관형어로 쓸 수 있는 반면, 거의는 그렇지 못하다는 면에서 설명의 실마리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15) **대부분/*거의**의 고통이 지나갔다.

6. 고려해야 할 '특별한 환경': 형용사

먼저 제시한 간단한 통계에서 보듯 '거의'가 선행하는 환경은 명사구나 부사어 앞보다 술어 앞에 선행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다. 이중 대부분은 앞서 논의한 성취동사나 완성동사 혹은 논항을 지닌 동작동사이다. 그러나 또한 한 부류를 차지하고 있는 술어는 상태동사이다.

코퍼스에 따르면 '거의'는 다음과 같은 형용사 용례를 지닌다.

(16) '비슷하다, 동일시하다, 동일하다, 일정하다, 없다, 평행하다, 전부하다, 똑같다, 불가능하다, 공통되다, 그러하다, 드물다' 와 같이 '거의'와 해당 형용사 사이에 아무런 명사구도 없이 나타나는 용례

a. 생산량에 있어서는 영양과 봉화가 거의 비슷하다.

b. 운동성 예술이기 때문에 스포트 업과 거의 같지요.

(17) '가깝다'와 같이 '거의'와 해당 형용사 사이에 명사구를 반드시 동반하는 용례

a. 대낮에 번개를 촬영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b. 해태 모양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 반추상 수석은 석질, 색, 양감과 골격이..

(18) '빨갛다'등과 같이 '거의'와 해당 형용사 사이에 반드시 부사를 동반하는 용례

a. 벽이 거의 다/전부 빨갛다.

(19) '없다'와 나타나는 용례

a. 아스피린이 효과가 거의 없다.

위 용례들은 형용사의 정도성과 '거의'가 작용하는 들로 볼 수 있다. 인지적으로는 상태수식의 경우에도 완결점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 형용사들이 '거의'의 수식을 받고 있다. '같다', '비슷하다'는 양자의 접근관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없다'는 완결점에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는 질량이나 수량이 있는 개체(들)가 점점 없어져서 완결점에 도달하는 과정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거의 있다'가 안 되는 것은 질량/수량의 개체(들)이 존재하게 되는 데는 '있다'의 양에 대한 완결점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슷하다'는 '같다'와 비슷해서 완결에 가까운 상태를 인지할 수 있지만, '다르다'는 다른 정도가 'open -ended'이므로 안 된고 볼 수 있다.

7. 진행상과 부사

지금까지는 부사를 완료상의 표지로 쓰는 경우를 논하였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상 중 하나인 '진행상'은 어떤가? 이는 '지금' 등과 같은 부사로 표지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3) .a. 너 뭐하니?
b. 너 뭐하고 있니?
c.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위와 같은 간단한 예에서 앞서 논의한 완료상 표지와 유사한 진행상 표지 부사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8. 상표지로서의 부사 활용성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부사의 출현은 해당 문장의 완료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한 통상적인 발화에서 '거의'와 같은 부사의 출현은 이전 발화에서 이미 해당 동사의 직접 혹은 간접 논항이 특정적이고 한정적인 형태로 출현했음을 알리는 표지가 될 수 있다.

정보 검색이나 자동 번역의 환경에서 기존의 통사 혹은 형태 이론을 이용하여 동사나 문장의 상을 검증해 내려면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본적인 형태소 분석과정을 거치면 그 결과의 중의성을 해소하고 앞뒤 논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비로소 상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문법현상보다 상대적으로 우선 순 위가 낮은 '상'이라는 면은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자연언어처리에서 활용빈도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특정 부사류를 하나의 상표지로 설정하게 되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문장의 상을 결정할 수 있고 상을 결정하기 힘든 문맥에선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시험어휘로 쓸 수도 있다.

상표지로서 부사의 용도는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희(1985) 셈숱말로서의 정도부사, *한글 제190호*, 한글학회.

손남익(1995) *국어부사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송현석(1998) 국어 양화부사 '거의'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석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이정민(2000) 상태 변화 및 창조 동사의 의미구조 (논항 및 상), 김영화 외(출판예정) 의미의 표상과 실현. 한림과학원.

한글과 컴퓨터 말씀서비스 http://www.hnc.net/hic/mal/mal2.html

Tenny, C. (1994) *Aspectual roles and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Kluwer Academic publishers.

Vendler,Zeno.(1967) Verbs and Times in *Linguistics in Philosophy*, Cornell Univ. Press.